

# 녹취록

## 한빛속기사무소

민·형사 증거용 녹취서, 주주총회, 각종회의록  
TEL : 02) 537-5119 FAX : 02) 3476-0073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길도빌딩 102호)

한빛속  
기사무  
소의인

# 녹취록

녹음일시	2021년 6월 21일.
녹음장소	전주■■■■초등학교.
대화자	■■■■. 유■■■ 母. 김■■■ 母. ■■■■ 母. 정■■■ 母. 문■■■ 母. 이■■■ 父. 교 장. 교 감. 그외 학부모 다수(12명).
작성일시	2024년 6월 3일.
<p>* 이 紀錄은 錄音原本(음성파일, 테이프, CD 등)의 내용과 相違 없음을 證明함. * 본 전자문서는 원본문서의 내용과 同一함을 證明함.</p> <p>擔當速記士 黃 東 元 (國家公認專門資格 第 94-35-009174 號)</p> <p>한 빛 속 기 사 무 소</p> 	
備考	<ol style="list-style-type: none"><li>“(…)” 표시는 청취하기 難한 부분임.</li><li>“(녹.중)” 표시는 녹음이 중단된 부분임.</li><li>“(前略), (中略), (後略)” 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것임.</li></ol>

## 對 話 ( 錄 音 ) 內 容

▣ 회의 녹음 ▣ - 2021년 6월 21일.

(인사 중)(박수)

교 감 네, 안녕하세요. 교감 임[REDACTED]입니다.

(박수)

교 장 학부모 참여회도 없고, 교육과정 설명회도 없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일로 이렇게 만나 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기는 하네요.

오늘 이렇게 온 이유에 대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만날 수도 없고, 학부모회의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문자로 이렇게 남기다 보니까 궁금하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전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모이기로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오시게 돼서 좀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좀 빨리 끝나고 서로 좋은 그런 협의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2학년 [REDACTED]반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겪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신가는 다 아시죠? 근데 이



제 1학년 때도 학생들이 많이 안 나와서 선생님이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학교도 가정도 아이들도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3월 달, 4월 달 이렇게 하시는데, 하시다가 이제 건강상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병가를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방학 전까지 병가를 들어가셔서 새로운 기간제를 뽑았어요. 근데 이제 기간제 선생님도 사정이야 어쨌든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어머님들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아이들도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으나 또 사정에 의해서 또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애가 1년 동안 어찌 됐건 같이 이렇게 쪽 가면 좋은데 중간에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그만두시니까 공고를 또 했어요. 그런데 요즘 기간제 선생님 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교감 선생님께서 여기저기 계속 알아보고 공고도 막 내고 했는데, 없어요. 오신다는 분이.

그래서 2차 공고를 지금 냈는데 지금도 오신다는 분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 예전에는 교장선생님이 들어라 어찌고 이렇게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학교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그리고 또 이런 위원회가 학교에 많이 등재되어 있어서 그분들에 의해서 협의회를 합니다.

이제 인사자문위원회는 선생님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협의하시는



그런 위원들이 모여서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에서 원칙적으로 우리 인사자문위원회 목록에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에는 선생님들이 협의 하에 그 학년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갑자기 하루일 경우에는 빈 선생님, 전담 선생님이 들어가면 그 시간에 선생님이 비시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빈 시간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 준비도 하고, 아이들한테 이거 하고, 연습, 이렇게 계속 연습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땀땀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틀이나 3일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선생님이 이틀이나 3일이면 전담 선생님이 하루를 다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 비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막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갔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또 그만둬서 또 이제 긴 시간이 되잖아요. 강사를 새로 구할 때까지는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자기 학년 또 가르치는데 2학년 새로 들어갈려면 전혀 모르는 상태고, 교재 연구도 안 되는 상태에서 또 들어가서 이중으로 또 아이들도 힘들고, 학생들, 선생님들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규정에 2안을 누군가는, 선생님들이 말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가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감 선생님이나 저나 ‘그래도 애들을 위해서 가는 쪽으로 처리를 계속해라.’ 했더니 한 분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하시는 사실 어렵고,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3일씩 전담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3일씩 그럼 들어가서 저희가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이것을 이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3일씩 들어가는 걸로 이제 그분들이, 안 하신다 그러면 또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이제 좋은 쪽으로 이끌어서 3일씩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3일 이렇게, 첫 주만 4일 교무부장, 연구부장이 들어가고 이제 다시 3일씩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협의 문자를 저희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시니까 전화도 하시고, 이제, 이제 반 회장님도 저희한테 이제 오셔서 협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는 어머니들이 학부모님이니까 더 생각도 있겠고,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걸 저희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가 기간제 강사를 빨리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막 여기저기 연락을 해 가지고, 문자 해 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공고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회장님하고 얘기한 상황까지가 여기니까 학교 사정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희는 나갈 테니까 학부모님들끼리 조금 협의를 좀 하셔서 좋은 방안을 저희한테 주면 또 저희가 그때 같이 협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 ] 母 근데 교장선생님, 담임도 없는 상황에서 솔직히 지금 2학년 [ ]반 아이들이, 다른 학부형, 학부형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학교 안 가고 싶어 해요.

교 장 네.

유 [ ] 母 그게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학교 측에서 아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임시 담임이 오셨을 때 선생님하고 상담도 했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선생님은 상황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한테 관심도 많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학교 가는 걸 무서워해요. 그 반에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의 성향이 다 그렇다고 저도 이제 우리 아이 다 보니까 처음에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아이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내 아이를 좀 더 단도리하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까,

교 장 아, 저기 지금, 지금 협의하시는 거는요, 이 선생님이 온다는 전체에 협의하시는,

유 [ ] 母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도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교 장 네.

유 [ ] 母 그러면 반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파악하기 힘들시잖아요.

교 장 그렇죠.

유 [ ] 母 잠깐, 잠깐 오시는데.

교 장 네.

유 [ ] 母 근데 이 문제가 선생님도 지금 부재중이고, 하여튼 계속 바뀌시고, 그러면 아이들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교 장 네.

유 [ ] 母 차라리 교감 선생님이나, 어?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아예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교 장 그걸 협의를 해서 주시라는 거예요.

유 [ ] 母 예예예.

교 장 그걸 협의를 어떻게 하는 게 ... 협의를 하세요. 네.

조금 어느 정도 협의되면 연락을 주세요.

(中略)

(49:11 ~ 55:01)

김 [ ] 母 그리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에게 학대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수업에서 배제가



되잖아요? 아이들이랑 분리를 시키잖아요?

학부모2(男) 네, 배제가 돼요. 예.

김 [ ] 母 그리고 반 전체 아이들을 심리 치료나 행동 치료를 지원해 준단 말  
이예요. 이것도 학교적인 문제라면 아이가, 저희 딸도 집에 와서  
절교, ‘친구 4명이 와서 절교하자고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B [ ] 母 [ ] 엄마, [ ] 엄마 라고 했죠?

김 [ ] 母 네! 왕따 라는 말을 쉽게 해요.

A [ ] 재는 따야. 레드야, 재는. 레드카드.

학부모2(男) 응.

학부모3 왕따야. 정말 충격 먹었어. 왕따,

학부모2(男) 그래서 학교, 애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했다니까요. 학교 안 가면  
안 되냐고.

학부모3 매일 그랬어요, 매일. 그래서 저는,

김 [ ] 母 제가 선생님이랑 전화하면서 면담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막 스  
쳐 지나가는데, 아~ 계속 힘들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  
요. 통화를 하는데.

B [ ] 母 ‘애들이 많죠.’ 라는 단어를 저도 들었어요.

학부모4 어? 스물두 명 정도는 많지 않은 거 아닌가?

학부모2(男) 그렇죠. 안 많죠.

김 [ ] 母 다 그 정도 기본,

학부모2(男) 예.



학부모5 그 사람 ...

학부모4 시골 학교도 그 정도, 시골 학교 수준 아닌가? 저는 진짜 여기 학교, ...

B [REDACTED] 母 전 지금 여기 학교 ...

김 [REDACTED] 母 근데 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부모2(男) 예.

정 [REDACTED] 母 작은 학교로 알고 있었는데.

김 [REDACTED] 母 여기 작은 학교인데, 여기가 언제부터 큰 학교였나?

(웃음)

김 [REDACTED] 母 그래서 저는 ‘보통 1, 2학년의 담임선생님들은 정년을 앞두신 분들을 많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대충 그렇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초반에도 선생님이 좀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스킨십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와 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이름을 모르니까 명찰을 차고 있을 때였잖아요. 학교 초반에.

B [REDACTED] 母 아, 여기, 여기요?

김 [REDACTED] 母 네네. 이름 명찰을 차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주일인가밖에 안 됐는데 **선생님이 와 가지고 목덜미를 ‘야, 야,’ 이렇게 하면서 건드렸대요.**

근데 저희 아이는 되게 스킨십에 좀 예민해서 **‘야, 그거 하지 말**



고 이거 해.’ 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그러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게, 아~ 그래서 “■■■야, 엄마가 일단 조금 지켜보다가, 선생님이 니 이름을 아직도 못 외웠을 거고, 엄마가 전화를 해도, ‘안녕하세요. ■■■ 엄마데요.’ 라고 말해도 선생님이 니가 누군지를 기억을 못할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했더니 애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우리 명찰 안 차고 선생님이 내 이름 외웠다.’ 근데 또 자꾸 목덜미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얘기를 한 대요. 찌르면서요. 되게 기분 나쁘게 어깨를 툭툭 민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신랑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B ■■■ 母 아~ 그래서 그 엄마도 그 아이가 어깨를 짊어 잡아서,

김■■■ 母 예!

A ■■■ 이렇게 손으로 딱 어깨를 딱 잡으면서.

김■■■ 母 예! 그래서 그 말하길래 신랑한테 “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무서운지 모르고 선생님이 그러시나?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모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그 너무 올드 한 사고방식이나 아이를 대하는 방식들이 계속 몸에 계속 남아 있던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180도 사람이 변해서 오진 앓잖아요, 솔직히.

학부모4 본인이 그런 거를 인지를 못 하세요.

정■■■ 母 혹시 아이들 까치발 하고 급식실 간 거는 알고 계세요?



A [REDACTED] 예, 알아요.

학부모4 까치, 까치밭 하고,

정 [REDACTED] 母 **뒷짐 지고 까치밭 하고 급식실에 가라고 했대요.**

A [REDACTED] 음, 맞아요.

정 [REDACTED] 母 저희 [REDACTED]이 같은 경우에는 등치가 엄청 커요. 4학년, 5학년만 해요. 근데 그 등치에 까치밭을 하고 뒷짐을 지고 급식실까지 가라고 했다는데, 그거는 진짜,

A [REDACTED] 그것도 학대죠.

정 [REDACTED] 母 그쵸. 그거는 절대 해선 안 되는 ...

학부모4 근데 지금도 까치밭을 안 하면,

학부모 ...

학부모4 ‘너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너 안 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한 대요!

B [REDACTED] 母 다른 반들도 까치밭을 해요?

학부모2(男) 아니요~

학부모들 아니요~

학부모3 안 하죠.

B [REDACTED] 母 어머~

학부모5 그래서 우리 물어봤어요. 딴 반 가서 다른 엄마들한테 ...

유 [REDACTED] 母 **엄마 나 실내화를 바꿔야 되겠다. 실내화를 신고 자기 까치밭을, 난 분명히 까치밭을 했는데 실내화가 크다 보니까 내 발이 안 보**



였나 봐. 친구들이 다 나보고 잘못 했다.’

문 [ ] 母 서로 일러요, 서로.

정 [ ] 母 어.

학부모5 서로 일르고, 서로 왕따를 조장해요. 선생님 교육 방식이에요, 그게.

B [ ] 母 어~ 이게 무슨 사연이야, 도대체.

학부모6 영화 속 얘기인 것 같아요. ...

A [ ] 그리고 그 얘기 들었나요, 애들한테? 레드카드 받은 친구들이 많은 날은 청소가 쉬운데, 레드카드 받은 날 2명이 있을 수 있고, 3명이 있을 수, 그럼 3명이서 청소를 다 하는 거야.

학부모4 저희 애기도 혼자 남아서 청소하고 온 적도 있어요.

정 [ ] 母 저희 애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청소를 왜 우리가 힘들게 해야 돼?” 이런 얘기도 했고,

학부모6 어, 다른, 잠깐만요. 옛날,

정 [ ] 母 방과 후를 늦어서 연락이 왔어요. 왜 안 오냐고,

학부모6 옛날엔 선생님이 청소했던 걸로 아는데.

학부모2(男) 원래 선생님이 청소하게 돼 있어요.

정 [ ] 母 그러니까 청소하느라고 늦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2(男) 원래.

학부모4 예. 근데 지금,

학부모5 아니, 옆 선생님은 선생님이 청소 다 하시던데. 다 닦으시던데.

정 [ ] 母 원래 청소기 있고 해서 선생님이 하시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학부모2(男) 예, 원래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예.

정 [ ] 母 원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B [ ] 母 잤다 와야 되, 이제 잤다 와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 예예예.

학부모 왜냐면 도저히 ...

B [ ] 母 어우~ 오늘 모임 안 했으면은 완전히,

학부모4 그리고 애들 그거 들으셨어요?

B [ ] 母 같이 가지겠어요?

학부모4 애들 이름 안 부르고 ‘야!’ 소리, 항상 소리 지르시고.

학부모 ...

정 [ ] 母 저희 애도 맨날 ‘오늘은 선생님이 소리를 많이 질렀어. 오늘은 선생님이 소리를 많이 질러서 끝에는 목소리가 이상해졌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A [ ] 예. 갈라지셔 가지고.

학부모 네.

A [ ] 응, 맞아요.

유 [ ] 母 이야기도 해 주시면 좋은 얘기, 동화,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무섭고 막 그런 얘기들,

학부모3 귀신 얘기, 도깨비 얘기.

학부모4 어어, 그런 ...

유 [ ] 母 ‘내가 귀신을 봤어.’ 막 그런 얘기.



학부모4 하! 학기 초에는 애기가 혼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무서워서.  
그 애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니까.

학부모2(男)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저기, 저기 인제 딸이 4학년인데,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이 계속 '누나 뭐 이거 했어. 요거 했어.' 계속 일르는 거예요.

A [REDACTED] 누나 ...

학부모4 일르죠?

학부모2(男) 예. 계속 일르는 거예요, 누나를. 전혀 안 일렀거든요. 누나가  
뭘 해도.

문 [REDACTED] 母 학습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학부모2(男) 예.

A [REDACTED] 애들 다 상담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지금 상황이.

학부모2(男) 그래 갖고 내가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지금 바닷가고 산이고 지  
금 캠핑을 다니는데, 가서도 지금 둘이 이제 놀 때는 잘 놀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뭐가 생각났는가 저기 막, 어제나 그저께  
있었던 일,

학부모5 '눈 감어!'

학부모2(男) 막 그런 것을 자꾸 일르는 거예요, 갑자기.

학부모 ...

학부모5 아, 근데 이거 문제 심각해요.

학부모3 일른대요.



학부모2(男) 예.

문 [ ] 母 일르고 절교 입에다 달고 살고,

학부모4 어어어.

학부모5 그 얘기 ...

A [ ] 오늘부터 절교. 재랑 놀지 마.

문 [ ] 母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다른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놀자.'  
그랬더니 '안 돼. 너는 돈 100만 원 가지고 오면 놀아줄게. 애들  
아 애 돈 안 가지고 오면 놀아주지 마.'

(中略)

(56:56~01:07:56)

교 장 장시간 애쓰시네요.

원활한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잠시 침묵)

B [ ] 母 ... 엄마들 의견으로 ... 담임선생님 교체를 원하고 있고,

교 장 지금 현재 2학년 [ ]반 선생님이요?

학부모 예, 그렇죠. 그다음에,

교 장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교체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2학기 때.

지금 어차피 1학기 때 선생님 안 나오셔요. 그러니까 2학기 때

담임선생님 교체는 해드릴게요.

학부모 참! 어이없다.

학부모 ...



교 장 아, 정식으로 담임선생님이 ... 오지는 못한대요.

학부모4 그럼 2학기 때 그러면 기간제 선생님이 오신다는 건가요?

교 장 네, 기간제 선생님이 오세요.

A [REDACTED] 그건 안 되죠.

교 장 예? 아, 그게 안 된다고요?

학부모2(男) 아니, 저희는 요구사항이 거기 이제 있는데요, 아마 저기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그 반을 맡아서 직접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 장 (웃음) 예,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교감 선생님 업무가 진짜 여기서는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너무 많으세요. 행정적인 처리를,

A [REDACTED] 수업 끝나고, 2시에 끝나고 해도 충분한데.

교 장 예?

학부모4 애기들 2시에 보내고 4시 반까지, 4시 30분이죠? 4시 30분까지 업무하셔도 충분하시잖아요.

교 장 그죠~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그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짜 많아요. 이 선생님들이 업무를 거의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업무를 학생,

이 [REDACTED] 父 애들, 애들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니까.

교 장 예?

이 [REDACTED] 父 애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잖아요. 나머지는 부수적



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고.

교 장 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업무를 하시고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전념하기 위해서 업무를 선생님들한테 많이 줘요.

학부모4 그럼 그 업무를 교장선생님이 하세요. 그럼 되죠.

교 장 예, 저는 제 업무를 보고, 제 업무가 이제 저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제 업무가 많습니다. 학교, 학년별 박람회 딱 해 가지고 저도 장·단점을 지금 다 받았거든요. ...

학부모2(男) 아이, 서로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업무를.

교 장 예~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은 명확히 해드리고, 해드리고자 하고요, 그게 좀 어렵다는 것은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좀 생각해 볼 사안이라서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담임선생님 2학기 때 교체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들이 협의가 됐지만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치만 이 때, 2학기 때 선생님이 이제 또 선생님 병가가 끝나면 어차피 나오실 건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요청한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학부모2(男)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얘기가 뭐 얘기죠? 2학기 때?

정 [ ] 母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세요.

학부모2(男) 지금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정 [ ] 母 교체를 해 주세요.

학부모2(男) 예.



교 장 예, 교체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학부모 네.  
교 장 아까 해드린다고 제가 했죠. 이제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되지만 ...  
학부모4 교체를 안 한다고 해도 ... 못하지.  
교 장 저는 정식으로 담임선생님 오시는 건, 그 선생님이, 뭐, (웃음) 개인적인 저기가 ... 교육청에서는 음~ 그 선생님이 일단 담임 교체면 강사가 오십니다.

B [REDACTED] 母 그 학기 중간에,  
학부모4 강사는 안 되죠.  
학부모2(男) 근데 교장선생님이 해 줄 수 있는, 뭘 그럼 학교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학부모 ...  
교 장 예. 그건 학교에서 하는,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 중간에 이제 교체 할라면 담임, 담임에 대한 티오가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담임 하나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으니까 저 ...에서 못하잖아요. 계획돼 있는 것만 하면 몰라도 계획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 선생님도, 현재 있는 선생님도 월급을 줘야 되고, 새로 또 월급을 줘야 되는 이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주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학교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사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학부모2(男) 그럼 그거 피해로 고스란히 아이들이 보잖아요.

교 장 예?

학부모2(男) 그런 피해를 아이들이 보지 않습니까?

교 장 그렇죠.

학부모2(男) 그러면 그 피해 안 보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잖아요.

B ■■■■■ 母 교장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 이제 안 계신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오셨던 선생님들, 3일에 한 번씩 오셨던 선생님이 ‘야, 너네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는 그러한 뉘앙스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상처받는 그런 언어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야기 들은 건데, 엘로카드나 레드카드나 그런 체벌이나 훈육이, 어떻게 보면 이제 훈육으로 보일 수 있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스스로가 그 기간에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로가 왕따를 당해야지만 이 아이에 있어서 힘의 구조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근데 2학년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커나가는 아이인데 왕따 라는 것 자체가 아이 인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첫 스스로가 아이들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교육 아닌 교육에 의해서 애들 뇌에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의견들이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교체를 강력하게 원하고, 3일에 한 번씩 온다 할지라도 선생님들이 ‘2학년 반에 말썽쟁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라는 인식 아닌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언어적으로 폭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강력하게 필요해서 교감 선생님 혹은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낚은 학기 동안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할지라도 항상 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짚어질 수 있는 선생님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클로는 표현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도 몰랐던 상황들, 왜냐면은 아이들이 스물 몇 명이잖아요. 여기 오신 엄마는 열두 분이신데, 여기 있는 엄마들도,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진짜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애들이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물론 다 100% 아이들이 하는 말을 아이니까 접어서 듣는 걸 수 있지만 분명히 있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레드카드, 옐로카드, 애 입에서 왕따가 나왔고, ‘나 왕따야.’ 라는 단어가 표현되는 말을 듣고 엄청 그랬어요. ‘내 아이는 그렇다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나는 다행인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더 심란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네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교육자이지만 엄마들 입장에서  
는 정말 이게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그래서, 그  
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의학적인 진단에  
있어서 인지적인 ...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의학적이  
판단이 되겠죠.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책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조속히 진행이 되었으면 하겠다는  
게 엄마들의 의견이신 거예요.

교 장 네~

B [REDACTED] 母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데 막 ... 하고, ...이기도 하고, 말  
씀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엄마 분들은 막 눈물이 보이시기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게 혼란스러워요. 그 얘기를 듣고, 일부만 들었거  
든요. 마냥 아는 얘기만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또 아닌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저도 솔직히 많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  
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말씀들을 해 주  
시니까, 근데 그게 참,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학교 차원에서, 물론 기간이 필요하겠고, 시간은 소요  
되고 그건 있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 자체가,  
사건이라 하기도 그렇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너무너무 속



상하고. 3일에 한 번씩 오게 되는 건 솔직히 바람직한 교육은 아니잖아요.

교 장 네, 바람직하지도 않아도 저희가 강사를 구하는 게 맞는데, 강사 그냥 한 번 오셨다가 또 이제 가시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또 선생님들끼리도 이제 할 얘기가 많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다 듣는 건 아니고 또 접어 듣고, 어쨌거나 강사를 구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강사가 없다고 하니깐 학교는 대안을 그렇게 한 거죠.

학부모1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구해진, 교장선생님도 지금 인정을 하시잖아요. 주변에서 선생님을 구하려고 하는데 안 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 장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교감 선생님이 알아보고 계시죠.

학부모1 근데 그 와중에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이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반에 비해서 학습도 많이 떨어지고, 저 그것도 솔직히 느껴요. 저희 아이가 지금 학원을 다니고도 있지만 학교에서 그 직무를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반 아이들하고 차이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해요. 솔직히 그것도 있어요, 선생님. 제대로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교 장 예, 그만큼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학부모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새로 오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모르시고 그냥 교육 진도



대로만 그냥 쪽쪽쪽 나가시는 거 ... 하시고,

학부모5 ... 아이들이 무섭다고 해요.

B [ ] 母 응용. 저희 아들은 학원을 하나도 안 보냈었어요.  
학원을 하나도 안 보내고, 금요일 날 한글나라 오는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 하는데 진도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학부모 그래~

학부모2(男) 예.

B [ ] 母 그래서 '뭘지?'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러면 서울권에 대한  
건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디, 어디 진도가 이렇게 우리 아들  
하고 다르나요?' [ ] 초' 라는 거예요. '진도가 약간 차이가 있  
나?' 저는 이제 그렇게만 알았어요.

학부모1 예, 틀려요.

B [ ] 母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학부모1 틀려요.

B [ ] 母 진도가 다른, 다른 게 맞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맨  
날 특하면 안 해요. 힘들어해요. 지금 교육청, 그래서 솔직히 학  
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하면서 노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  
어요. 그래서,

학부모1 1학년 때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안 가고, 3일마다 계속 바뀌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을 애들이



맞이할 때마다 이게 계속 얼마나 교육이 연계성 있게, 연계성 있게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의심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어쨌든, 물론 대신할 수 있는 선생님이 빨리 구해지는 게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게 저희,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을 이게 제일 적합하다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여기에 계속 계시고, 이런 상황들을 책임져야 할 분이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예요.

(中略)

(01:19:15~01:26:34)

교 장 예. 그래서 새로 온 선생님은 ‘자기 이제 기준에 맞춰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결과야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 오시든 좀 관심 가져주시고, 뭘 일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잘 이렇게 대화로 해 가지고 잘 풀으시라 이런 얘기죠.

학부모2(男) 근데 아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엄마들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심리 상태가, 이 왕따 라는 게 왜 만들어졌고, 지금 2학년 올라와서 레드카드 이거 도입하면서 아이들이 절교, 뭐 이런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걸로 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런 사단이  
났는데, 그에 따른 피해가 지금 아이들한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도 없고, 아까 어떤 선생님이, 어떤  
어머님이 얘기하더라. ‘유치원 같으면은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은 바로 수업에 못 들어오고 아이들 심리치료,  
전체적으로 심리치료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하는 게 뭐  
가 있나요?

교 장 그래서 심리치료는 저희가 상담 교사 다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필  
요하면,

학부모2(男) 아이, 관에 있는 상담교사 말고요. 학교에 있는.

교 장 아이들에 대한 집단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교사도,  
우리 학교 상담교사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반 들어가겠다고 얘  
기를 했어요. 창체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B [ ] 母 집단 상담으로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 장 예?

B [ ] 母 집단 상담을 해서 치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 장 그러니까 일단 그 상담 쌤이 가면 놀이, 놀이 위주로 해 가지고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하시다면 언  
제든지 저희가 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상담이 필  
요하다. ...

학부모2(男) 아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학부모1      아니,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전체적으로 불안한데, 이거는 학교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해요. 선생님, 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이 먼저 ‘아, 이렇게 선생님이 바뀌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아이들한테 이런 심리적으로 그게 영향에 갈 수 있겠구나. 학습적인 것이 아니라 영향이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2학년 ■반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선생님을 또 이렇게 필요하다면 ...’

학부모2(男) 아휴~

교 장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지도를 해달라는 얘길요?

학부모2(男) 아이,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B ■■■ 母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니고요, 교장선생님, 한 번 2학년 ■반을 ...

A ■■■      왜 자꾸 우리가 요구했다고 생각해?

학부모2(男)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자꾸 유도를 한다니까, 지금.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원래.

B ■■■ 母    그러니까 수업이, 수업은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이 들어가는 거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수업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시고, 어떠한, 어떠한 상담 치료가 필요한지, 어떠한 상담 교육이 필요한지, 전체적인 놀이 교육이 필요한지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나 우리 오신 아버님의 의견들이 전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학부모6

요즘에 근데 CF도 나오잖아요. 애기를 때려야만 학대가 아니고, 표창원 CF 나오거든요. 누군가를 괴롭히게 종용하는 것도, 다른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도 모두 다 아동 학대에 속한다고 했어요.

근데 원장님, 아니 원장님이란다. 교장선생님께서서는 뭐 2학년 반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고, 뭐 레드카드,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미 그전에 누구에게든, 아이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저희는 다수의 엄마들은 오늘 와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학부모7

처음 들었어요.

학부모6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이 숨기셨, 선생님이 숨기셨구나. 이런 거를 좀 감추려고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게 제가 겪은 상황이라면 저는 상담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는 학부모님이 저는 존경스러울 정도고요, 이렇게 일이 터질 때까지 그냥 쉬쉬하고, 기간제 오시는 선생님한테도 이런 거 그냥 아무 언질을 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니



까 학부모의 갈등,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을 내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꾸 숨기고 묻어둔 그런 상황이 기간제 선생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교 장 네. 어머니 의견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B [REDACTED] 母 아무튼 한 번 2학년 [REDACTED]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깜빡한 게 뭐냐면, ‘니네 말 징그럽게 안 듣는다. 2학년 [REDACTED]반 말 징그럽게 안 듣는다.’

김 [REDACTED] 母 어. 3학년 과학 선생님이,

B [REDACTED] 母 오셔 가지고,

김 [REDACTED] 母 ‘너네 말 드럽게 안 듣는다고.’

B [REDACTED] 母 ... 그 말 듣고 정말 순간 ‘어~ 이런 말을 내 아들이 들었구나.’ 라는 거에 조금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김 [REDACTED] 母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번이나. ‘너희들 안 들리는데 선생님 책상에서 얘기하신 거냐?’ 아니라. 교단에 서서 너희들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저희 애가 ...

B [REDACTED] 母 항상, 항상 선생님들은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멘토처럼 행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김 [REDACTED] 母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B [REDACTED] 母 ... 2학년이라는 전제 하에 그 빈 공간, 빈 그 안에 남아 있는 선생님이 오셔서 애써주신 것까지는 다 알겠어요. 근데 애들은 모



든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도 뭔가를 들으셨기 때문에 ‘니네 반은 힘든 반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엄마로서 본다면 그러면은 나도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책임을 저줄 수 있는 교감 선생님, 교장선생님이 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요청 아닌 부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업무가 많으시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돼요. 근데 엄마들 입장은 ‘그래도 내 자식이고 아이들 교육이니까 책임을 좀 저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신지는 알아요, 저희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100% 만족을 못하죠.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담임선생님 교체가 된다는 거는 100%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는. 근데 그 대신 ‘빈 공간, 그렇다면 빈 그 안에, 빈 그 안에는 어떡하냐?’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들을 좀 챙겨줄 수 있는 선생님이 와주셨으면’ 라는 거죠. 결론은 말을 하자면. 다른 엄마들처럼 엄마들은 다들 자식 맡기고 있는데 뭐를 잘못하



고 싶겠어요? 애들 다 잘 키우고 싶지.

그러니까 저도 와서 들은 얘기,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요즘 시대, 코로나 이 시점에 누가 대면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르니까 뭐 오해 아닌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황이 얽혀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꼬여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소문들도 많았었고. 근데 그 소문에 우리 담임선생님이 계신 거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불편한 모습들이 막 보이고, 아이들이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1대 1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은 상처 안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하고 대화 나눌 시간이 거의 없어 가지고 맨날 애는 할머니하고 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교 장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사위원회를 좀 열어  
서 협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알려드리고 전체 공개 하라 할게요.

B [ ] 母 그리고 뭐 저기, 공고처럼 이렇게 오픈된,

교 장 예,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할게요.

B [ ] 母 예. 밴드에도 올려주시면 더 공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교 장 네.

(中略)

(01:43:22~01:56:22)

학부모2(男)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 아까 다 설명했고,

학부모1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 다 얘기했어요.

학부모2(男) 내용을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건가.’ 그게 중요하다면서 왜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지.

교 감 제가, 네네네. 레드카드는 이제 부모님들이 다 원치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학부모2(男) 네.

교 감 그거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지금 3일씩 들어가신 선생님한테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떤 선생님이 오셔도 그거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쵸? 그거에 대한 답변은 됐죠?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고를 지금 1차를 냈는데, 공고 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냥 오늘 내고 내일, 뭐 내일까지 이게 아니라. 처음에 4일도 냈는데 지원자가 없었



어요. 2차 공고를 냈는데 오늘 12시가 마감인데 지원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요. 명퇴자나 아니면 정년퇴직하신 분들 중에, 원래는 명퇴자나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채용이 안 돼요. 1, 2차 공고 때까지는. 1, 2차 공고까지 내서 아무런 지원자가 없고 할 사람이 없으면 교육청에다가 그냥 ‘명퇴자나 아니면은 퇴직하신 분을 채용해도 되겠냐?’ 공문을 보내서 어, 그럼, 그럼 이제 공문을 받아요. ‘해도 된다. 그렇게 해라.’ 라는, 허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공문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분을 알아봐야 돼요. 그게 절차예요. 이제 그거를, 일단은 그게 절차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일단은 우리 2학년 ■반의 문제고,

학부모2(男) 통보구만.

교 감 사실은 아이들이 각각 틀리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만나서 어머님들과 협의를 ...

유 ■ 모 아니 지금 아이들이, 2학년 ■반 아이들이 왕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걸 알고 계시잖아요, 선생님.

교 감 네.

유 ■ 모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교 감 왕따는 오늘 지금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2(男) 있겠구나 가 아니라 받았죠.

유 [ ] 母 이게 지금 첫 아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고 있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반 아이들이 돌고 있어요, 지금. 그  
것도 지금 모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이 사람한테, 이 아이한테 말을 하면  
직접 가서 말을 하고, 나 너 싫고, 니가, 내가 너, 니가 이렇게 했  
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자기가 다른 아이한테 지시를 해요.

‘너 재한테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럼 그 밑에 아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교 장 사실 왕따나 왕따 이런 것들은 우리 인성 부장이 개입을 해서 선  
생님도, 담임선생님도 빠지고 인성 부장하고 전담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왕따가 있었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조사  
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따가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유 [ ] 母 네. 아이가, 저희 아이가 오늘 제가 학교 간다니까 ‘엄마, 학교  
가서 절대 [ ] 이 얘기는 엄마, 절대 하지 마. 하면 안 돼.’

학부모1 그러니까 ‘제가 왕따 당했어요.’ 이럴 애가 어디 있냐고요?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고요?

유 [ ] 母 어.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엄마가 먼저 이런  
말을 해서 개가 이걸 알게 되면,



학부모1 또 ...

유 [ ] 母 나는 개한테 미움을 받을 거고, 또 다른 아이들하고 나는 또 외톨이가 될 거고, 이런 게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당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교 장 근데 이제 2학년짜리가 왕따를 어떻게 시켰는가 제가 이제 사실 파악을 하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아이 생각에는 이거 왕따를 당한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인성 부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학부모1 [ ]이 뿐만 아니고 저희 딸은 지금도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교 장 네. 어떤,

학부모1 ... 어떻게 왕따를 당하긴요? ‘개랑 놀지 마.’가 왕따죠. ‘너 개랑 놀지 마.’ 우르르 3~4명이, 5명이 재를 혼자 놀게 하는 게 왕따인 거죠.

B [ ] 母 맞아요.

학부모1 그리고 우리 딸은 [ ]이 말은 좀 듣지만,

교 장 지금 왕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볼게요.

학부모1 어떻게 조사하실 건데요?

교 장 애들 이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할 것이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받을 수 있도록 ... 협의를 할게요.

학부모2(男) 지금 이게 사단이 레드카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나온 건데.



A [redacted] 그래서 2개월이 지났고.

학부모2(男) 응. 근데 그전에 파악을 했으면 이런 사단까지 안 왔지.

A [redacted] 그리고 교감 선생님, 그 찌그락, 물병 저기해서 우리 아들한테 레드카드를 줘서 청소시켰다고 했잖아요. CCTV 저희가 저기, 캡처해서 제가 보냈어요. 그날 아이가 물병을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간 이유는, 선생님이 물을 못 먹게 한대요. 제가 애기드렸죠, 처음부터. 선생님이 물병을 다 회수한다. 그래서 앞에다 다 놓게 하고 끝나면 물병을 가져가게 한다니까요. 우리 지금 아이가 물병을 ...

학부모2(男) 아, 이거 학부모님들 다 알잖아요.

(여러 학부모님들 얘기로 녹취 불능)

학부모2(男) 예, 학부모님들 다 알고 있어요.

학부모 ...

학부모1 ... 물을 못 먹게 해요?

B [redacted] 母 아침마다 해서 주는데 그러면 그거를 계속 못 먹었던 거예요?

학부모들 예예예.

학부모 ...

학부모2(男) 예. 다 걷어 갖고 만지질 못하게 해요.

(여러 학부모님들 얘기로 녹취 불능)

학부모2(男) 수업 시간에 아예 만지지 못하게 해요.

학부모1 그랬더니 '선생님이 물병 갖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 이래 가지고



선생님 그만두고 나서,

A [REDACTED] 물병을,

학부모2(男)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민원 제기 해야 된다니까.

이 [REDACTED] 父 제가, 제가 물병 항상 빼거든요. 근데 물병이 늘 그대로예요. ...

학부모2(男) 예, 물을 안 먹고 온다니까, 애들이.

학부모4 아니, 못 먹게 해요. 못 먹게 해.

(여러 학부모님들 얘기로 녹취 불능)

학부모6 그러니까 그러면 정년하신 선생님을 알아봐 주신다는 거죠?

교 장 네?

학부모6 정년, 정년 선생님,

교 장 아니,

교 감 안 구해지니까, 2차 ... 지금 안 구해지니까 정년이나 명퇴한 선생  
님을 ...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학부모2(男) 아휴~ 아이, 지금 우리한테 통보해줄려고 그러는구만.

교 감 ... 협의체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협의를 해서,

학부모2(男) 어? 그러니까 정년 선생님을 부르겠다 통보구만.

교 감 어~ 왕따든 뭐든, 물 먹는, 그러니까 물 먹는 거 이거는, ...

B [REDACTED] 母 근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물을 못 먹게 하기는 해요.

교 감 예예.

학부모2(男) 아니 개인 물병이잖아요.

(여러 학부모님들 얘기로 녹취 불능)



학부모1 물병을 못 꺼내게 했더니깐요.

A [REDACTED] 짜그락을 안 했다고요.

학부모4 그러니까 그러면 급식실에서 밥 먹다가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학부모1 어.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학부모4 근데 이걸 일체 못 갖고 가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학부모2(男) 하니까,

이 [REDACTED] 父 물이 늘 그대로 와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제가 물병을 매일 뺐는데 맨날 그대로 와서 매일 물어보거든요. ‘너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니?’ ...

학부모3 이게 3월에 있었던 이야기에요.

교 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3월에 알았다고 한다면,

A [REDACTED] 알았잖아요!

교 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A [REDACTED] 교장선생님 다 아셨어요! 제가 교감 선생님께 얘기 드렸어요.

[REDACTED] 그래서,

교 장 3월 달엔 이 일이 불거지지 않았을 때라,

교 감 ...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씀을,

A [REDACTED]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한테 사과를 하셨죠?

교 감 말씀을 드릴게요. 4월 20일 이후에, 3월이 아니라 4월 20일 이후에 말씀 하셨어요.

[REDACTED] 근데 이제 어머니는 ‘계속 선생님이 물을 못 마시게 한다.’ 그랬



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는 못 마시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선생님은,

학부모4 아, 밥 먹을 때도 못 먹게 했어요.

학부모1 근데 ... 급식소 가는 것도 ... 물병을 못 꺼내게 하셨어요.

A [REDACTED] 하~ 아우, 답답해.

교 감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학부모2(男) 그게 몸에 베였어, 지금.

교 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물을 할 수 없으니까 개인 물병에 물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그거를 그냥 아예 못 먹게 했다. 다 걷어놓고. 이러는 거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학부모6 교감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 지금 총 합해서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얘기 들었을 때 너무 힘드신 상황이실 거는 저희가 좀 이해가 돼요. 그 상황이 학생이나 학부모나 총 취합해 가지고 지금 좀 어려우신 상황은 맞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두 달 가까이 정작 피해보고 있는 거는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기간제만 무조건 기다리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교 감 좀 적극적으로 ... 저희가 ...

학부모6 네. 적극적으로,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 아직 안 나오는 방학 시점까지는 조금 안정감을 취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진짜 간곡히 부탁을 드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교 장 지금 이제 교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제 어머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학교 측 입장을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는 저희가 협의를 한다고 모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부모6 네.

교 장 예.

학부모1 **그거 하고 아이들 지금 왕따 문제, 아이들 ...**

교 장 네. 왕따 문제는 제가 ...

교 감 반이 안정화돼야 되는 게, 그래야 해결이 될 부분이에요. 지금요.

학부모 맞아. 그건 맞아.

학부모2(男) 그전까지 피해를 ...

교 감 이게 1대 1로 다 그렇게 누군가가 이 사람이 ... 이럴 수 없잖아요. 조사를 하는 게 중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반이 안정화돼야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 장 **자, 왕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왕따가 지금 누가 딱 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협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라고 문제 제기하시면 ...**

유 **네. 저도 제기할게요, 선생님.**

교 장 예?

유 **제가 제기할게요.**



교 장 하실래요?

유 [ ] 母 네. 저는 저희 아이가 솔직히 이 반에서 제일 먼저 당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엄마들은 다 인지를 못하셨고, 저는 ‘내 아이만 단도리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른 아이 엄마도 자기 아이, 그 아이도 지금 힘들어하고, 이게 번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솔직히 내 아이만 단도리하고, 내 아이도 잘하고, 우리 아이가, 저는 다른 아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이도 당연히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정도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아침마다 걱정을 하면서 가는 이 자체가 이견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 장 이제 왕따 라는 건 우리가 학교 폭력에 해당이 돼요.

유 [ ] 母 그렇죠. 네.

교 장 그래서 학교 폭력 자문위에는 학부모도 위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 학부모하고 함께 이제 이걸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유 [ ] 母 네. 저 유 [ ],

교 장 예?

유 [ ] 母 유 [ ] 엄마요.

교 장 유 [ ].

유 [ ] 母 네.



교 장 면 ...

유 [ ] 母 [ ]이요, [ ] [ ]

교 장 예. 이걸 그러면 정식으로 이제 제기가 됐으니 제가 조사를 할게요.

유 [ ] 母 네네네네.

교 장 아, 저는 이제 애들 전체 이렇게 알리기가 좀 ... 그것도 이제 하나의,

학부모2(男) ...

교 장 하나의 이제 저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육을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외부 사람을 원하느냐? 학교 내에서 해결할까?’ 이걸 물어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정식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유 [ ] 母 아니 솔직히 저는 그쪽 엄마를 좀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 엄마 연락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근데 선생님이 중간에서 그 엄마 ... 그쪽 엄마한테 ‘아들이 이런 상황이고 이렇다.’ 라고 말을 하고, 저는 그냥 결과적으로만 들을 뿐이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그쪽 엄마, 전 오늘 오시기를 바랐는데 오시지를 않았어요.

않았고, 지금 자기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솔직히 궁금해요.

교 장 이제 또 이렇게 또 이게 접수가 되면 저희는 또 이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



그리고 이제 교감 선생님 얘기했듯이 우리 입장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얘기한 세 가지에서 한 가지 더 해서 저희가 이제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저희가 저희 회장님하고 연락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인정을 하신다면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학부모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2(男) 네.

교 장 ...

B [REDACTED] 母 결과를 주시게 되면 그거를 저희, 저희 반 밴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교 장 아니, 제가 ...

학부모1 다시 한 번 모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부모2(男) 예.

교 장 그러면 밴드를 통해서 ...

학부모1 저희뿐만 아니라 안 오신 엄마들도 다, 안 오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학부모2(男) 그렇죠.

학부모1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다른 엄마들이랑 다 해서 같이 다 한 번 모여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2(男) 밴드에다 올리시면 될 것,

학부모1 저는 오늘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반절 밖에 안 오셔 가지고.



학부모2(男) 예, 그러니까.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정 [ ] 母 저는 저희 조카도 선생님 댁에 전학을 갔고 해서 저희 언니가 정 [ ] 선생님이 담임이라니까 ‘허!’ 소리를 지르고 기겁을 했어요. 그래 갖고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첫날부터 ‘선생님 무서워. 뭐 해, 뭐 해. 근데 누가 안 나왔대. 선생님 쓰러졌어.’ ‘아, 올게 왔구나.’ 그리고 왔거든요, 지금.

학부모2(男) 그러니까 민원 제기를 해야 된다니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A [ ] 께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 [ ] 母 그러니까요.

A [ ]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시간만 계속 끝났잖아요.

정 [ ] 母 4월 20일부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예요, 이거는. 저는 한 해, 두 해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학부모2(男) 그러니까 5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월부터 이런 것이 없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왕따도 나올 일도 없었고. 가게.

교 장 이번주에는 ...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만 참아주시고, 하여튼 어머님들 의견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가 학교 쪽에서 좀 노력을 하고, 좋은 쪽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학부모1 이번 주는 선생님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 장 두 분이서 하시게 될 거예요.



교 감 이번 주, 이번 주부터 ...까지 일단은 한 선생님이 하시고요,  
 학부모1 어떤 선생님,  
 교 감 ... 월, 화, 수 3일 동안, 그래서 이제 3일씩 일단은, 지금은 이제  
 3일씩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는데, 오늘 의견을 주셨으니  
 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해볼게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학부모 학교를 잘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교 장 ... 긴 시간 ...

교 감 죄송합니다, 아무튼.

교 장 ... 저기, 처음부터 그냥 잘했으면 좋는데 어떻게 일이 꼬이다보니  
 까 ....  
 (後略)

● 끝 ●

**\* 본 전자문서는 원본문서의 내용과 同一함을 證明함.**

